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도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29.

발의자 : 최도자 · 김광수 · 정인화
전혜숙 · 윤영일 · 강창일
주승용 · 박명재 · 김중로
이용주 · 김해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·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,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44조).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4조(별 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②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300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제44조(별 칙) ① ----- ----- -----<u>3천만원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1천만원</u>----- -----.</p>